

## News

### '금융위 강화'로 감독체계 개편되나…피해구제 개선 주목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 금융업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직 통폐합 등 체계 대수술보다는 금융위의 권한과 역할 확대 전망에 무게 실어…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캠프의 인적 구성 및 정책통이 밝힌 구상으로 볼 때 금융위 힘 강화 예상… 금융회사 중징계 권한 확보 등으로 '슈퍼 금융위' 가능성

### 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연장에… 은행권 대손준비금 8760억 추가 적립

머니S

은행권, 올해 8,760억원의 대손준비금 쌓기로… 금감원의 향후 부실대비 대손준비금 더 쌓으라고 권고한데 따른 조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조치 연장 영향… 국내 은행의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 순전입액은 20년 대비 34.6% 확대 예상

### 은행권, 우크라이나 피해 기업에 금융 지원…최고 1%p 대출금리 감면

한국경제

은행권,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본 기업들 대상 금융지원 진행… KB,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 복구 소요자금 범위 내 시설자금 등 신규 대출

신한은행, 총 지원 규모 3,000억원… 우리은행, 5월말까지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하나은행, 최대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 여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시장 바뀔때 주도권 잡자" 은행 DB형 퇴직연금 경쟁 불붙는다

파이낸셜뉴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DB형 적립금 운용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DB형 퇴직연금 시장에 큰 변화 있을 것

300인 이상 DB 도입 사업장은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해야 하고,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매년 1회 이상 작성 등이 포함… 원리금 비보장상품 부문에서 은행권 주도권 경쟁 심화 예상

### "핀테크에 뺏길라"… 실손 청구 간소화 나선 보험사들

조선비즈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 관련 소비자 겨냥한 핀테크 업체들의 서비스 늘면서 기존 보험사들도 관련 서비스 확대하는 모습… 기존 보험금 청구 방식에 불편함 느끼는 소비자 많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와 MOU 맺거나 모바일 청구 시스템 적용 범위 넓히는 식… 다만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핀테크 업체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 표하기도…

### 배달 라이더 등 보험 가입 증가세.. 손보 실손 위험직군 비율 높아졌다

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 실손보험 손해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위험직군의 가입비율 높인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로 배달업 증가하며 라이더들의 가입비율 높아져 눈길

위험직군의 가입비율 높아진 이유로 위험직군에 대한 보험 인수지침 완화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 손보업계, 21년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 131%에 달해…

### '중개형 ISA' 1년만에 300만명 돌파… 삼성證 업계 첫 '잔액 1조'

동아일보

ISA 가입자 수 출시 1년 만에 300만 명 돌파… 가장 많은 가입자 확보한 삼성증권 중개형 ISA 잔액은 업계 최초 1조원 넘어서…

삼성증권, 총 가입자 수 85만 3,655명으로 업계 전체의 28% 차지… 고배당주와 ETF를 가장 많이 담는 전략으로 절세 효과…

### IB 팀주는 유안타증권… '범중화권' 사업확장 이어간다

CEO스코어데일리

유안타증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IB부문 강화… 범중화권 인프라 적극 활용할 계획… 국내시장에 진출하려는 범중화권 기업에 IPO, M&A 자문 등 제공 방식으로 IB사업 추진

다만 2018년 이후 한국거래소가 중국 기업 관련 회계 및 전산 시스템 확인 절차 강화하며 중화권 기업의 국내 상장 열기 주춤하다는 점은 과제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